

# 세계기도정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역할 확대...소수 종교 차별 예상  
 [니카라과] NGO 씨 말리는 니카라과...1천500곳 한꺼번에 폐쇄  
 [이란] 무슬림 100만 명 회심...모스크 5만 개 폐쇄  
 [아르헨티나] 세계3대곡창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아동 100만 명 저녁 굶어  
 [아이티] 보트 폭발 사고 후 부두교 신자들 그리스도께 돌아와  
 [중국\_홍콩] 국가보안법 우려에...5년간 홍콩인 916명 영국·호주 망명 신청  
 [콩고민주공화국]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에 30명 이상 사망  
 [자메이카] 치안 악화로 암살 위협 받는 총리...갱단만 180여 개  
 [파푸아뉴기니] 최악의 산사태 현장에서 성경배포하는 선교사  
 [이라크] 9세 여아 결혼 합법화 개정안에 국민들 반발  
 [우간다] 여성 기독교인, 개종했다고 아버지가 화상 입혀...

출처: 기도24.365  
<http://prayer24365.org>



## 2024. 8 멕시코에서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 새 예배당(과달라하라)

8월 4일 주일, 이전한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페루 사역을 준비하며 많이 아팠다. 예배당 이전을 전혀 돕지 못하며, 혹시나 성도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오지 못하는 2~3명을 제외하고 감사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다. 성도들은 3주 만에 훌쩍한 배를 가지고 돌아온 나를 반겨준다.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했음을 알게 된다. 감사하다.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쿠바 선교를 향해 기도한다. 그전 예배당보다 규모는 적어졌지만, 주일학교를 연령별로 나눌 방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공예배 공간을 줄어들었지만, 소그룹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가득 채워진 성전을 보며 하나님과 모두에게 감사하다.

## 쿠바 의약품

8월 10일 토요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친구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뉴욕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연합 장로교회에서 보낸 의약품 8박스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전구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쿠바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내온 약이다. 7월 메리다 사역 이후에도, 메리다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과 현지 의사들이 많은 의약품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 돈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약품들이 이렇게 미국, 멕시코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모이고 있다. 이것은 쿠바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페루 사역을 마치고 9월 4일 멕시코에 도착하면, 며칠 쉬고 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갈 계획이다. 사랑으로 모여진 약품이니, 분명 저 약품이 꼭 필요한 쿠바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까지 차를 가지고 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가는 길에 좀 쉬면서 이동할 계획을 세운다.

## 설교는 나를 향해..

8월 13일 화요일, 12시간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했다. 공항에 총회 임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잠시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아야쿠초라는 지방으로 향했다. 장로교 총회장 및 목회부 그리고 신학부 부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8월 14일 수요일, 아야쿠초에서 다시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다. 노회 모임에 참석해 현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오간다. 나는 잠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다시 다음날 아마존 정글이 시작되는

비차리로 향했다. 차를 타고 4천 미터의 산맥을 넘어 도착한 비차리는 아마존의 시작점이다. 남반구가 겨울임에도 이곳은 덥다.

8월 16일 금요일, 이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정글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모여 2주에 걸쳐 나랑 공부가 시작되었다.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30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스페인어 외에 깨우침을 사용하는 이들은 아직도 스페인어가 서툰 나에게 너그럽다.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 이곳에 사역하는 시골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순수하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자 훈련을 어떻게 사역에 적용해야 하는지 매일 실습을 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눈물을 멈추지 않는다.

8월 18일 주일, 오늘은 하루 종일 설교와 노회장들과의 모임이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 가르치니, 실 틈이 없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현지인들이 나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현지인들은 가르침보다 설교를 통해 나를 평가한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주일 오후, 나와 함께 다니던 총회장이 지역노회장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다. 비차리를 중심으로 한 아마존 지역에는 현재 92개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더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 92개 교회 중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단 12 교회라고 한다. 아마존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많은데 목회자나 훈련받은 사역자가 없다. 그 이유로 장로교 총회에서 나를 초대했고, 내가 어떻게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을지 그리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는 끝났다. 나와 함께 다니던 총회장과 임원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비차리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아마존 지역에도 세워진 예배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 세워진 예배당이 원래의 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워주길 나에게 요청한다. 페루 장로교에는 아직 차체 신학교가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역만으로도 나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그러나 세워진 예배당이 목회자나 사역자가 없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몇 년 남지 않은 은퇴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쿠바에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했다: “천석아, 너의 한계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11월 말, 나는 아마존 북부로 가기로 했다.

## 기도제목:

1. 새롭게 정착한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가 안정을 찾고 복음을 나누며 제자삼는 교회되도록.
2. 아마존의 시작 지점인 페루 비차리 지역의 사역과 이곳 장로교 교단과의 연합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주역되는 사역이 이루어 지도록.
3. 9월과 10월 두 달동안 새롭게 선정하는 쿠바 목회자 선정에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